**<정다온 (어린시절)>**

다정히 손을 붙잡고 초등학교에 가는 다온이와 할머니. 둘 사이에는 할머니의 애정 섞인 말과 다온이의 어린 말들이 오간다.

다온 (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) 할머니. 근데 있자나.
 (할머니: 응)
다온 (손으로 놀이터를 가르키며) 나 저기서 그네 조금만 타다 가면 안돼?
 (할머니: 안된다고 말한다)
다온 아, 조금만 타다 가자, 응? 조금만. 아 조금마안!
 (할머니: 빨리 학교에 가야한다고 말린다)
다온 나 그네 타고 싶단 말야! 아 조금만! 딱 10번만 태워줘, 응?
 (할머니: 결국 10번만 타라고 말한다)
다온 히. 응. 딱 10번만 탈게.

**<저승사자>**

저승 여긴, 망자가 저승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르는 공간입니다. 저희 저승사자는 망자를...

(다온: 본인이 죽은 것이냐고 묻는다)

저승 엄밀히 말하면, 아직은요. 여기는 저승도, 이승도 아닌, 그 사이의 공간이니까요.

(다온: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혼잣말)

저승 (침묵을 지키며) 저희 저승사자는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.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, 저희 저승사자는 망자의 전생을 조사하여 더 나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찾아오는 망자에게 여러 질문을 드리고 있죠. 다온 씨도 그 질문에 답해 주셔야 하고요. 괜찮으신가요?

(다온: 네)

저승 (준비한 서류를 펼치며) 그럼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름 정다온, 성별 여성, 나이는 한 15살? 맞나요?

**<정다온(청소년)>**

다온 (황급히 방에서 나오며) 할머니. 내 검정색 원피스 어쨌어? 안 보이는데,

(할머니: 빨래통에 넣었다고 답한다)

다온 (버럭 화를 내며) 아니, 그거 빨면 어떡해? 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 때 입으려고 빼 놓은 거란 말이야!! 빨리 말려줘! 입고 나가야 한다고!

(할머니: 다른 원피스를 입고 가라고 말한다)

다온 아, 진짜 할머니까지 왜 그래? 아니, 왜 놀러가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? 할머니는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 지 알아? 아악! 할머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!

(할머니: 놀라 다온이를 부르려 한다)

다온 (말을 끊으며)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물건을 함부로 만져? 할머니가 뭔데! 할머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림도 제대로 못 배우고, 놀러가지도 못하고! 할머니만 없었으면 다 제대로 됐을 텐데! 다 할머니 때문이야!

**<할머니>**

할머니 (그네를 밀어주며) 다온아. 학교에 괴롭히는 친구들은 없지~?
 (다온: 다정한 친구들이 많다고 말한다)

할머니 그럼, 당연하지. 우리 다온이가 얼마나 예쁜데. 오늘도 가서 선생님 말 잘 듣고. 선생님 말 잘 듣고 오면, 오늘 저녁에는 햄 사다가 구워줄게.

(다온: 좋다고 말하며 계란도 해달라고 말한다)

할머니 그래, 할머니가 해줄게~

(다온: 이제 그네에서 내려달라고 말한다)

할머니 다 탔어? 그래, 내려줄게. (내리는 다온의 손을 잡으며) 이제 학교 가는거다?